



[해설] 이견희 별세 한달 삼성 불확실성 털고 주가 고공행진 03



Economy

코스피	↑	2602.59 (+49.09)	코스닥	↑	873.29 (+3.11)
금리 (국고채 0년)	↓	0.955 (-0.008)	환율 (원/달러)	↓	1110.40 (-3.90) (23일)



대한항공 항공기.

'한지붕 두' 국적항공 구조개편 '신의 한수'

항공업계 빅딜 X

30여 년간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내 항공업계 '빅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에 나서면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공사들이 이미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수급 불균형으로 경영난을 겪어왔기에 이번 양사의 통폐합에 따른 시장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그에 따른 여파에 대해 연속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上) 항공시장 지각변동

수급 불균형 인한 경영난 속 코로나 겹쳐 최악 보릿고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뎀 FSC 1곳, LCC 5곳으로 재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전체가 결국 구조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실사단 구성을 마무리했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약 두 달간 아시아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등의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류 실사를 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대면 인터뷰나 현장 실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기훈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20일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선 통폐합이 아닌 시간대 조정 등의 중복 노선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항공기 조정, 목적지 추가를 통한 인력 유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향후 인수 방향에 대해 밝혔다.

대한항공과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아시아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조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

아나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을 위해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분율 63.9%로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같은 대형항공사(FSC)의 통폐합은 그간 국내 항공시장에 제기돼왔던 구조개편의 필요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 양대 국적사가 하나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양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사도 함께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운항하던 항공사만 아홉 군데에 달하던 국내 항공업계는 FSC 1곳, LCC 5곳으로 구조조정 될 전망이다.

실제 국내 항공업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이전부터 이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당초 두 자릿수를 유지해왔던 내국인의 출국 수요 성장률은 2018년 7월 이후 지난해 2월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뜻하는 아웃바운드 시장에 공급이 쏠려있던 국적사들의 특성상 이 같은 수요 하락에 따른 타격을 수박에 얹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내국인의 출국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9월 기준 7만6798명을 기록하며 -9.3%로 역성장을 보였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3월 플라 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며 논란을 빚었다. 항공시장 내 수요가 줄고 있고 기존 항공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외려 새로운 면허 발급으로 공급을 늘렸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구조개편 작업은 양대 국적 항공사의 통합뿐 아니라 양사 산하 LCC와 지상 조업사 등 관련 자회사들의 가능 재편까지도 포함돼 있어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서 전체적인 통합과 기능 재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증시 새 역사... 코스피 최고치 경신

외국인 매수세로 2600선 넘어 2년 10개월만에 증가기준 최고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2년 10개월만에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보다 49.09포인트(1.92%) 상승한 2602.5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의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18년 1월 29일 증가 기준 2598.19다. 장중 기준으로는 같은 날 2607.10이다. 이날 2602.59 마감으로 코스피는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2600대 증가 기록을 세웠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9886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8741억원, 기관은 592억원을 팔아치웠다.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 중이다. 특히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13거래일 동안 6조415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740억원, 기관은 161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도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4.17%), 삼성전자우(3.95%), SK하이닉스(3.82%), LG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553.50)보다 49.09포인트(1.92%) 오른 2602.59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

화학(3.18%)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히 국내 대표 반도체주로 꼽히는 삼성전자(4.17%)와 SK하이닉스(3.82%)는 전일 대비 각각 2700원, 3700원 상승한 6만7400원, 10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10만원선에 올라섰다.

앞서 반도체는 11월 수출입 동향이 전년 동기 대비 21.9%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1.28%)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전기전자(3.69%), 증권(3.34%), 운수장비

(2.6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533개, 하락 종목은 305개, 보합 종목은 67개로 집계됐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부흥에 대한 우려보다는 백신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달러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을 비롯한 유동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긍정적인 수급여건이 단기간에 부정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ikyung96@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은경 "코로나 백신, 연내 3000만명분 확보"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역 크고 작은 집단감염 지속 전국적 대규모 유행 우려 상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92세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단계다. 정부는 연내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일(330명)보다 줄어 들면서 92세만에 300명대 아래로 하락했다. 지역별 발생 역시 255명으로 전일보다 47명 줄어 들었다. 다만, 서울 109명, 경기 74명 등 수도권에서만 206명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 발생하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나흘째 200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난 21일 재발병동을 방문한 입

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자는 81명으로, 서초구 사우나 확진자도 56명으로 늘어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대 확진자 비율이 40주 차 총 확진자 10.6%에서 47주차에는 17.8%로 급증했다"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연내 코로나19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여러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백신 3000만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